

대장경 속 8만4천법문, 감동으로 전한다

4월 29~30일, 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의날 개최

법보사찰 해인사(주지 향적)가 팔만대장경을 수호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4월 29~30일 이틀에 걸쳐 '제56회 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의날' (이하 대장경의날)을 개최한다.

그동안 해인사는 매년 음력 3월 9~10일 '해인사 팔만대장경 정대불사'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개최해왔지만 올해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로 확대하고 다양한 축하공연을 마련했다. 이는 지역민의 참여를 높이고 팔만대장경 세계문화유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함이다.

먼저 대장경의날은 29일 오후 4시 해인사 입구 비석거리에서 시련(侍禱) 행사를 시작으로 그 막을 올린다. 시련은 불보살, 옹호신중, 역대 조상영가 가마를 도량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인도왕반, 오방반, 향로, 오색기불기, 태극기와 십바라밀기, 정사조룡 등의 행렬을 볼 수 있다.

오후 6시 30분 예불 후에는 대령관옥과 심금을 울리는 회심곡 공연이 보경당에서 이어진다. 팔만대장경의 역사와 대장경을 알 수 있는 <팔만대장경 어디서 왔는가> 등 영상물 상영은 오후 8시 30분 보경당에서 진행되며 11시 30분부터 대적광전에서 철야정진으로 산사의 밤을 밝힌다.

30일은 오전 7시 30분 대적광전 앞에서 향, 꽃, 차 등을 부처님 전에 올리며 쾌불봉안을 거행한다. 오전 10시부터는 퓨전국악 아이돌 그룹 '미인'의 공연과 합창단의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2016년 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의날 기념법회'는 배우 이민지의 사회로 오전

**기존 정대불사 문화축제로 확대
대장경 역사부터 의미까지 한눈에
기념법회·축하공연·정대행진 등
따뜻한 봄날 가족나들이로 제격**

11시 대적광전 앞마당에서 봉행된다. 기념법회는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의 헌화와 전계사 및 주지 향적 스님, 유주 율원 스님 등 내빈들의 헌화가 이뤄진다. 팔만대장경 연혁 보고 및 방장 원각 스님 법어, 축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팔만대장경 정대행진은 오후 2시 30분 구광루 앞에서 진행된다. 정대행진은 세계문화유산인 해인사 장경판전에 보관된 팔만대장경 판의 모형을 머리에 이고 해인사 도량을 따라 도는 사람들의 장엄한 행렬이다. 정대불사는 조선 태조 7년(1398년) 장경판을 강화도 선원사에서 해인사로 이운



2013년 대장경세계문화축제에 참여한 대중이 대장경판 모형을 머리에 이고 정대행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대장경 테마파크

할 때 신도들이 경관을 머리에 이고 옮긴 데서 유래됐다. 해인사는 일제강점기에 팔만대장경관을 지키는 모임인 '해인봉찬회'를 조직했던 영암 스님이 대장경에 담긴 호국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1959년 정대불사를 재연한 것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대장경의날 행사는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또한 해인사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facebook.com/haeinsa.kr), 인스타그램(instagram.com/haeinsa_official), 팔만대장경 페이스북(facebook.com/haeinsa81258)에서도 행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해인사 페이스북과 팔만대장

경 페이스북에서 추천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기면 3인 3관 연극티켓 등 선물을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정대동참은 1인 3관원, 영가 동참 1위당 1만원의 별도 접수가 필요하다.

해인사는 "대장경의날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가야산과 흥류동 계곡, 소나무 숲에 둘러싸인 해인사의 봄 풍경이 대중에 볼거리를 제공한다"며 "가족들과 봄을 만끽하면서 한국불교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자랑스러운 세계기록유산이자 국보인 팔만대장경의 수호 행렬에도 동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055)934-3105 **하성미 기자**

대구 해운정사, 삼존불·아라한 점안법회

4월 17일, 축하공연도

대구 달서구 해운정사(주지 청명)는 4월 17일 삼존불 및 오백나한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점안법회에는 법사 묘허 스님과 삼성암 월오 스님, 도원사 용암 스님, 행원승가연합회장 도경 스님, 비구니분다리가 불교문화원장 현진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초청법사 묘허 스님은 "아라한은 부처님 제자로서 수행을 통해 일체의 번뇌를 끊고 수행자들의 최고 계유인 아라한과를 얻은 성자를 이른다"며 "수행

자들은 번뇌 망상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마음 닦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법문했다.

해운정사 주지 청명 스님은 "석가세존께서 전법도생을 위해 기원정사에서 녹야원까지 맨발로 걸어 내왕하시면서 사성제와 인연법을 설하셨다"며 "그때 들었던 교진여 등 수많은 성자들은 모두 즉석에서 큰 아라한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법회에 이어 2부에는 영산합창단(단장 전재은)의 음성공양, 불교무용공연, 초청가수 축하공연, 해운정사 신도들의 노래자랑이 진행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금정구노인복지관, 어버이날 기념 걷기대회

5월 4일, 부산대역서

어버이날을 맞아 걷기대회를 통해 감사의 뜻을 담은 행사가 개최된다.

사회복지법인 범어 금정구노인복지관(관장 조수경)은 5월 4일 오전 9시~오후 3시 부산대역서 3, 4번 출구지하 야외무대에서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걷기대회는 어버이날을 기념해 사회적 중추 역할을 담당해온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경료효친 사상을 계승하기 위해 열린다.

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부산대역산책로, 온천정역, 명륜역, 동래역 등 총 4km 구간을 걷은 뒤 세명고 야외무대에서 열리는 부대행사로 마무리된다.



지난해 열린 금정구노인복지관 어버이날 기념 걷기대회 모습.

특히 대회 중간에 훌라후프 돌리기, 단체 율놀이, 한자 조형물 찾기 등 다양한 미션을 마련했다.

금정구노인복지관은 "감사행사를 통해 경료효친사상을 확산하고 노인의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것이다"고 전했다. 051)792-7208 **하성미 기자**

달라이라마 경전공부법 <논리(딱셀)> 강좌

부산 4월 30일~5월 1일
서울 5월 21~22일

공성을 깨우치기 위한 연기법을 공부하기 위해 달라이라마는 '논리'를 강조했다.

문(問)·사(思)·수(修)를 기초 공부법으로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불교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이 부산과 서울서 연이어 개최된다.

부산 광성사(주지 소남)는 4월 30일~5월 1일 '티벳 계시 스님께 직접 배우는 <논리(딱셀)>' 강좌를 연다. 강좌는 총 8회에 걸쳐 이어진다. 모든 수업은 연기법을 주제로 소남 스님이 만든 교재를 가지고 문답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 일정은 5월 21일~22일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장소는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30길21 종로오피스텔 1101호다. 051)243-2468

하성미 기자

"부처님 닮은 어른 되거라"

홍법사, 유아·청소년 수계법회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다양한 수계법회를 개최하고 부처님과 인연을 맺는 시간을 마련했다.

홍법사는 유아 및 청소년 포교를 위해 4~5월 △가족수계법회 △동자승 단기출가 △영유아 수기 법회 △마을상좌 수계식을 개최한다.

가족수계법회는 4월 24일 오전 11시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열렸다. 지난 재가 동안거에 참여한 동림 어린이회 학생들과 가족 30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우리는 불자가족'이란 주제로 열린 가족 수계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는 가족이 될 것을 서원했다.

이어 동자승 단기출가 입제식도 진행됐다. 이번 동자승 단기 출가에는 14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했다. 4월 24일 입제식을 시작으로 동자승들은 21일간 출가생활을 경험한다. 단기출가 기간 동안 통도사 방장스님 친견, 부산 연등축제



홍법사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4월 24일~5월 8일까지 다양한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사진은 주지 심산 스님이 지난해 영유아 수기 법회에서 마정수기 하는 모습.

봉축기념 제등행렬 동참, 해군 작전사령부 방문, 조계사 축구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28일 삭발 수계식과 5월 14일 부처님오신날에 환계식을 진행했다.

5월 1일 오전 11시 대광명전에서는 영유아 수기 법회가 열린다. 법회를 통해 홍법사는 배속의 아이를 입대한 부모의 설렘과 두려움을 마정수기로 일소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닮은 아이들이 태출 것

을 발원한다.

청소년 및 일반 재가자들을 위한 행사도 열린다. 마을상좌 수계식은 5월 8일 오후 7시 대광명전에서 개최한다. 마을상좌 수계식은 스님을 마음의 스승으로 삼고 진리의 아버지로 삼는 의식이다.

홍법사는 "대중에 있는 아기부터 성인까지 부처님과 인연 맺는 의식에 동참하고 부처님오신날을 더욱 뜻 깊게 맞이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2016년도 부산파라미타 발대

중·고등부 임원진 구성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협회장 백명숙)는 4월 16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2016년도 발대식을 개최했다. 청소년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발대식에서는 회장 및 부회장, 지도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고등부 회장은 김민기(동인고), 부회장은 정우현(브니엘고), 이시은(성심보건고) 학생이 맡았다. 중등부 회장은 구세진(연제중), 부회장은 신지원(해동중) 학생이 임명됐다. 총재 경선 스님(범어사 주지)은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며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했다.


경선 스님은 "오늘 불과 같은 화사하고 밝은 파라미타 청소년들을 보니 힘이 난다"며 "여러분들은 파라미타 활동을 통해 육바라밀을 알고 세상을 이끌어 갈 인재들이라. 바라밀을 실천하고 부처님의 지혜 아래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총재 경선 스님이 회장단 학생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백명숙 협회장은 "파라미타 활동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다"며 "불교는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는 종교다. 많은 참여를 통해 지혜를 성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발대식에 참여한 부산 파라미타 학생들은 범어사 경내에서 단주 만들기, 임진왜란 퍼즐 맞추기, 다도 체험, 컬러링 액자 만들기, 매듭공예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하성미 기자**



석가(釋迦)를 품은 53見


전귀 화두집

© 도서출판 왕산

석가(釋迦)를 품은 53見

가슴을 치는 화두집이 드디어 출판되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문중인 독각~진귀 존자의 화엄경 참구와 만경(萬境)이 둘이 아닌 선(禪) 삼매문을 통한 선교일승(禪敎一乘)의 평온한 안목으로 쓴 화두집(석가(釋迦)를 품은 53見) 드디어 출판되다!



편저자
독각~진귀(獨覺~眞歸)
화엄경 강원 강주

- 이렇게 괴짜스럽고 이렇게 부사의 하고 희유한 안목으로 이렇게 신선한 생기(生氣)와 묘(妙)한 장엄이 감도는 ~ 화두집은 부처님 경전 외엔 느껴 본적이 없었다
- 법화수행원 원일스님
- 이 화두집은 시원한 사이더를 마시는 느낌이다 ... 위광거사

☎ 도서출판 왕산
문의 1899-9532
ISBN 979-11-87004-05-9 값 30,000원

※ 북타북 등 인터넷 및 전국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 석가(釋迦)를 품은 53見 목차 | | |
|-------------------|-----------------|-----------------|
| 제1見 석가(釋迦)를 품다 | 제19見 참새집 | 제37見 자식인연 |
| 제2見 평은 초대장 | 제20見 병(病)든 부처 | 제38見 형제 인연 |
| 제3見 법(法)을 버리다 | 제21見 생화와 조화 | 제39見 도반인연 |
| 제4見 차 한 잔 | 제22見 직거래? | 제40見 부부인연 |
| 제5見 해인 삼매 | 제23見 묘혜(妙慧) | 제41見 대방광불 회염경.. |
| 제6見 창조와 표절 | 제24見 법은 무의(無依)다 | 제42見 왕(대통령) |
| 제7見 아부선사 웃다 | 제25見 천도(遷徙)란? | 제43見 독각(獨覺)은? |
| 제8見 요지경 | 제26見 고구마 부처? | 제44見 <나> |
| 제9見 말 많은 석가? | 제27見 마음속 부처 | 제45見 대도(大道)란? |
| 제10見 히말라야 영화 | 제28見 개나리는 노랑다 | 제46見 부처님 오신날 |
| 제11見 동시구족 | 제29見 범부와 선지식 | 제47見 신통력(神通力) |
| 제12見 법맥? | 제30見 깨달음의 신호등 | 제48見 보시(기부) |
| 제13見 부처와 하룻밤을? | 제31見 다음생 | 제49見 정견(正見)을 치다 |
| 제14見 윈드서핑 | 제32見 종(鐘) | 제50見 업(욕심의 흐름) |
| 제15見 발효식품 | 제33見 스승을 찾아서 | 제51見 평온을 만나다 |
| 제16見 한 맛 | 제34見 대자유인의 길 | 제52見 화엄경_7행시 |
| 제17見 뒤바뀐 안목 | 제35見 집착을 놓다 | 제53見 평은 축제 |
| 제18見 평온한 남자 | 제36見 종교와 현실 | |